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브라질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2020년 12월 9일 | 조사역(G3) 조현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8,516천 km ² 	인구 2.1억 명 (2020 ^f)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실리주의 
GDP 13,638억 달러 (2020 ^f) 	1인당GDP 6,450달러 (2020 ^f) 	통화단위 Real (R\$) 	환율(U\$기준) 5.20 (2020 ^f) 

- 브라질은 남미 대륙 중동부에 위치한 국토 총면적 8,516천 km²(세계 5위)의 대국으로, 에콰도르와 칠레를 제외한 모든 남미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원유,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량을 기반으로 하는 원자재 수출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강도 높은 친시장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권위주의적 행보와 코로나19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2020년 11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연합이 부진하였음.
- 메르코수르 탈퇴 위협 등 아르헨티나와의 갈등은 봉합되었으나, 5G 사업 추진을 앞두고 미·중 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문제로 유럽 국가들과 마찰이 심화되는 등 대외 관계에서 난제에 직면해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59. 10. 31. 수교 (북한과는 2001. 3. 9.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63), 문화협정('67), 이중과세방지협약('91), 과학·기술협력협정('92), 항공협정('95), 관광협력협정('97), 범죄인인도조약('02), 사증면제협정('02),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05), 형사사법공조조약('06), 국방협력협정('08), 사회보장협정('15)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5,505,232	4,883,693	4,809,207	반도체,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
수입	3,702,337	3,908,060	4,295,597	식물성물질, 철광, 육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20.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299건, 8,582,615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3.3	1.3	1.3	1.1	-5.8
소비자물가상승률	8.7	3.4	3.7	3.7	2.7
재정수지/GDP	-9.0	-7.9	-7.2	-6.0	-16.8

자료: IMF

브라질 경제는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

- 브라질 경제는 농산물, 원유, 광물 등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함.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기인 2015년 및 2016년 각각 -3.5%, -3.3%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17년에는 원자재 국제가격 반등으로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음.
- 주요 교역국인 중국, 미국 및 아르헨티나의 경기변동, 정·재계에 만연한 부패 이슈 등 정치적 불확실성, 연금개혁을 비롯한 친시장 개혁정책 등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마이너스 성장 전망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내외 수요 위축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5.8%의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됨. IMF의 2020년 10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의 2020년도 GDP는 1.36조 달러로 예상됨. 이는 2007년(1.4조 달러) 수준까지 감소한 것이며, 2019년 10월 세계 9위에 해당했던 GDP 규모 순위가 2020년 10월 기준 세계 12위까지 하락하였음.
- 브라질 자동차산업협회(ANFAVEA)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남미 대륙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3월 이후 대부분의 산업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브라질의 주력 분야인 자동차 제조업은 4월 판매량이 52,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77% 급감하는 등 경제활동 전반이 둔화되었음.
-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말 기준 브라질의 실업률은 14.6%에 달하였으며, 세계은행은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브라질에서 700만 명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였음.
- 다만, 브라질 중앙은행이 연초 4.5%였던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연속 인하하여 현재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2%에 이르렀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추이가 심화되는 중에도 자이르 보우소나루 행정부는 봉쇄를 완화하고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 재개조치를 시행하였음. 이에 힘입어 4월 이후로는 소비가 반등하고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20년 경기침체의 정도가 역대 주변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IMF) : 브라질 -5.8%, 콜롬비아 -8.2%, 멕시코 -9.0%, 아르헨티나 -11.8%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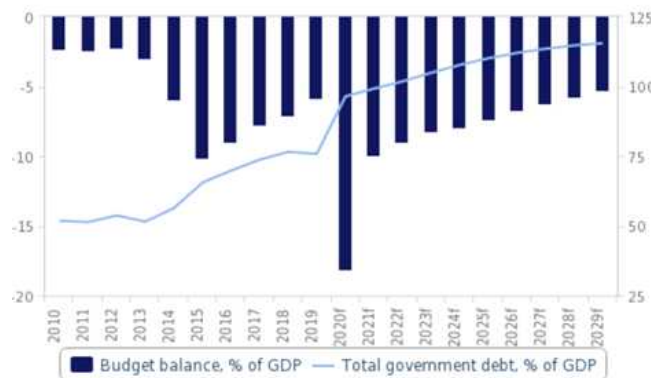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요 부진과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둔화

- 9월 초 브라질 중앙은행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현금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신규 200헤알(약 44,000원, 발행시작일 기준)권 지폐를 발행하자 헤알화 가치 하락 및 물가상승 우려가 제기되었음.
-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저조한 에너지 국제가격의 영향이 헤알화 가치 하락¹⁾ 등 수입 가격 상승 요인을 상쇄하여,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전년(3.7%) 대비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관리목표(4%±1.5%p) 이내의 수치에 해당함.

정부지출 상한법 예외 적용으로 재정수지 적자의 대폭 심화 전망

- 브라질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6년 말 정부지출 상한법을 제정하여 향후 20년간 재정지출을 전년도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였음. 이에 힘입어 브라질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7~19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음.
-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비정규직과 실직자 등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공공지출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동 법에 따른 재정수지 목표 수준 이행의무를 면제하였음.
- 2020년 4~8월 월 600헤알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2,544억 헤알(약 50조 원)이 투입된 데 이어 9월부터는 지급액을 월 300헤알로 조정하여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약 1,000억 헤알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긴급재난지원금 위주의 정부지출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9년 -6.0%에서 2020년에는 -16.8%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 GDP 대비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비중 추이



자료: Fitch Solutions

1) 브라질 헤알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은 2020년 초 4.03헤알에서 5월 중 최고 5.94헤알까지 상승하였으며, 2020년 말에는 5.54헤알, 연평균으로는 5.20헤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상 수 지	-24,230	-15,015	-41,540	-50,927	-5,008
경상수지/GDP	-1.4	-0.7	-2.2	-2.8	-0.4
상 품 수 지	44,635	63,959	53,047	40,473	59,757
상 품 수 출	184,315	218,069	239,537	225,821	221,756
상 품 수 입	139,680	154,109	186,490	185,348	161,999
외 환 보 유 액	356,795	365,445	365,544	346,490	332,652
총 외 채	666,777	667,103	665,777	679,507	664,570
총외채잔액/GDP	37.1	32.3	35.3	37.0	48.7
D.S.R.	50.0	38.6	38.4	38.2	40.9

자료: IMF, EIU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요 위축에 따른 총수입액 급감으로 경상수지 적자 축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내수요 위축으로 2020년 전년대비 상품수입은 233.5억 달러, 서비스수입은 153.8억 달러 감소하는 등 총수입액이 약 660.5억 달러 급감(19.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대두와 철광석, 육류 등 주요 수출품목의 중국발 수요가 안정되어 있어 총수출액의 전년대비 감소분은 총수입액 감소분보다 적은 198.5억 달러(7.0% 감소)로 전망됨에 따라 2020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0.4%(전년도 -2.8%)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임.

월평균 수입액의 14개월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출입 규모가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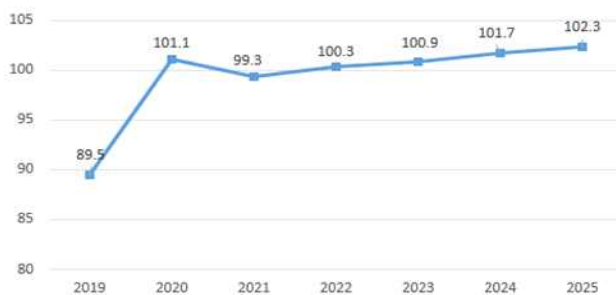
- 브라질의 외환보유액은 2018년 말 3,65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9년 수출 감소와 중앙은행의 외환 매각으로 3,465억 달러까지 감소하였고, 2020년 수출 감소폭 심화 등으로 2020년 말 기준으로는 3,327억 달러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말 기준 월평균 수입액의 14.7개월 수준의 외환보유액은 수입규모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원자재 가격 하락,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수출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외환보유액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외채상환능력

외채 관련 지표 악화 추세 속 공적채무 규모 증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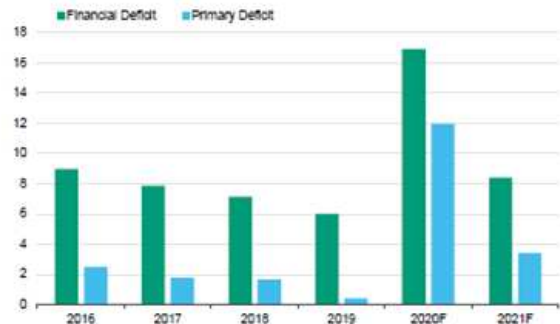
- 2020년 말 기준 브라질의 총외채잔액과 단기외채잔액은 각각 149.4억 달러 및 93.9억 달러 감소할 전망이나, 총수출액과 GDP의 감소로 인해 D.S.R.(38.2% → 40.9%)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37.0% → 48.7%)이 전년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IMF의 2020년 11월 Debt Sustainability Analysis에 따르면, 브라질의 공적채무는 본원적 재정 적자 비중이 2019년 1.0%에서 2020년 11.6%로 급증한 영향으로 2020년 GDP의 101.1%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동 수치는 보유외환 매도 가능성 등에 따라 2021년 99.3%로 감소한 뒤, 다시 2025년까지 매년 소폭의 상승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브라질의 공적채무 증가 추세가 다른 주요 신흥국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하였으며, Moody's는 공적채무 증가 등으로 내년 초에도 재정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브라질의 정부채권 신용등급(현재 Ba2) 하향 조정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공적채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브라질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 전망(%)



자료: IMF

브라질의 GDP 대비 재정수지·본원적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자료: Moody's

구조적취약성

'브라질 코스트'로 인한 경영 및 투자환경 저하

- 높은 세율과 복잡한 조세구조, 관료주의적 행정절차와 만연한 부정부패 등으로 대표되는 '브라질 코스트 (Brazil Cost)'는 브라질의 기업 경영여건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조세구조는 브라질 내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EIU에 따르면, 브라질의 법인세율은 34%이나, 복잡하고 다중적인 세제구조로 인해 수익 대비 조세부담률은 64.7%로 OECD 평균인 39.9% 및 중남미 평균 47%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이로 인해 브라질은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 평가 납세 부문에서 190개국 중 184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종합순위가 하위권인 124위에 그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브라질 정부는 4단계에 걸친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2020년 7월 기존에 산업별로 다른 세율이 부과되던 사회기여세(PIS)와 사회보장세(COFINS)를 상품-서비스세(CBS)라는 단일 세율의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였음.
- 또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300%까지 세율의 차이가 큰 공산품세(IPI)와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향후 브라질 정부의 추가 개혁조치 성과에 따라 '브라질 코스트'의 극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성장잠재력

풍부한 자원과 대규모 내수시장 보유

- 브라질은 원유 매장량 기준 세계 15위의 산유국이며, 그 외에도 철광석(세계 2위), 니켈(세계 3위), 망간(세계 2위) 등 다양하고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브라질은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이며, 브라질 국립통계원에 따르면, 2015년 농산물 수확량이 2억 톤을 넘어선 이후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수확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남미 최대 면적인 851.6만 km²의 국토에 인구 2.1억 명의 대규모 내수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인구 구조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2019년 브라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18년 598억 달러 대비 20.4% 증가한 719.9억 달러를 기록하여(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남미 국가들 중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 1위를 유지하였음.
- FDI 유입액: 537억 달러(2016) → 665.9억 달러(2017) → 598억 달러(2018) → 719.9억 달러(2019)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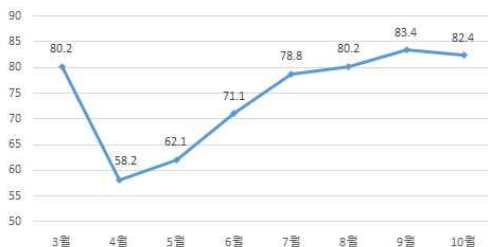
연금개혁안,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보우소나루 행정부는 전임 정권부터 추진되었던 연금개혁안을 2019년 11월 발효하였음. 동 개혁안에 따라 연금 수령연령이 상향되고 최소 납부기간이 연장되어 10년간 최소 8,000억 헤알(약 223.7조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그러나 2019년 연금 부문 적자가 3,184억 헤알(약 89조 6,200억 원)로 2018년(2,890억 헤알) 대비 약 10% 늘어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였고, 2020년에도 동 수치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한편, IMF는 브라질의 중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조세제도 개혁을 주문하였음. 브라질 정부 또한 복잡한 조세제도와 관료주의적 행정절차 등 '브라질 코스트'의 해소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친시장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기 부양 및 소비 진작

-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4년 전 14.25%에 달하였으나, 2016년 10월부터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하에 금리 인하와 동결을 반복하며 2016년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2017~19년 주요 교역국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 등의 여파에 대응하였음. 2020년에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다섯 차례 금리를 인하한 결과, 현재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역대 가장 낮은 2% 수준임.
- 브라질 기준금리: 4.5% → 4.25%(2월) → 3.75%(3월) → 3%(5월) → 2.25%(6월) → 2%(8월)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8월까지 월 600헤알, 9월부터 연말까지는 월 300헤알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심리를 진작하고 있음.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제틀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에 따르면, 브라질의 월별 소비자신뢰지수는 3월 80.2에서 4월 58.2로 급락한 이후 9월 83.4까지 5개월 연속 상승하였고, 브라질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경제활동지수도 4월에 전월대비 9.23% 하락한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월별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자료: FGV

월별 경제활동지수 추이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 이와 같은 정책 대응으로 브라질 정부는 소비 반등에 기반한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으며, 역내 주변국들과 비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기관별 2020년 브라질 경제성장률 전망 : -5.8%(IMF), -5.2%(EIU), -4.5%(브라질 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정치안정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탈당에도 야권의 분열로 위협적인 견제세력 부재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11월 사회자유당(PSL)을 탈당한 이후 '브라질을 위한 동맹'(APB)이라는 당명의 신당 창당을 추진하였음. 당초 3월까지 창당 절차를 마치고 지방선거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창당 과정이 지연되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현재 당적이 없는 상태를 유지 중임.
-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일부 중도우파 정당들과 연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당(PT) 등 주요 좌파 정당들은 분열되어 있어 큰 견제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대규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등으로 빈곤층으로부터의 지지를 공고히 하여 9월에는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높은 37%까지 상승하였음.
- 브라질 의회는 상원의 경우 전체 81석 중 13석(16.0%)을 차지한 중도 정당 브라질민주운동(MDB)이, 하원은 513석 중 54석(10.5%)의 PT가 최다 의석의 다수당일 정도로 상·하원 모두 주도권을 확보한 특정 정당 없이 여러 정당들이 10% 내외의 의석 점유율을 기록 중임.

2020년 11월 지방선거 결과 중도 정당들의 부상

- 11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중도 정당들이 선전한 가운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극우 세력과 룰라 전 대통령이 이끄는 PT 등 좌파 정당 모두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극단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표면화된 것으로 분석됨.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불법 선거운동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하였으나,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13명의 시장 후보들 중 11명, 45명의 시의원 후보들 중 36명이 낙선하였음.
- 2003~16년 동안 집권한 대표적인 좌파 정당인 PT 역시 35년 만에 26개 주도(州都)의 시장 선거에서 단 1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하며 향후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보임.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좌파 정당의 입지 축소에 주목하면서 중도 정당들과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임을 밝혔음.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선전한 주요 중도 정당들은 기존에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연대를 이룬 정당들이 아니었으며, 상파울루 시장직 등 주요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대표 인사인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확보해 가고 있어 중도 정당들과 보우소나루 행정부 간 연대에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 있음.

사회안정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 만연

- 브라질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2019년 180개국 중 106위에 그쳤으며, 주요 정계 인사와 기업들이 부패에 연루된 바 있음.
- 루이스 이냐시우 룰라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브라질 건설업체 오데브레시로부터 400만 헤알(약 9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되었음. 이는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기소이며, 2017년 수감되었다가 2019년 11월 석방되어 정치활동을 재개한 지 약 11개월 만임.
- 오데브레시는 이외에도 2001년부터 중남미 9개국의 정치인들에게 총 4억 달러 이상의 뇌물을 제공하였으며, 2014년에는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와 계약 수주 관련 뇌물수수 정황이 밝혀졌음.
- 특히 오데브레시와 페트로브라스 간 뇌물 스캔들은 2014년 3월 권력형 부패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작업인 '라바자투(Lava Jato)'가 개시되는 계기가 되었음. '라바자투'를 주도한 세르지우 모루 전 법무부장관이 브라질 반부패의 상징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기도 하였으나, 2020년 4월 대통령의 직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임한 데 이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최근 "라바자투를 끝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부패 척결 노력에 제동이 걸릴 위기를 맞고 있음.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연방경찰이 자신의 두 아들을 포함한 측근들에 대하여 가짜 뉴스 유포 및 부패 혐의로 조사를 벌이자 관련 수사보고서를 요구하였음. 이를 거부한 마우리시우 발레이슈 전 연방경찰청장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임하자, 모루 전 장관은 부당한 수사 개입에 반발하며 사임하였음.

지지층 결집을 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의도적인 갈등 조장으로 사회분열 심화 우려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행보와 과거 군부 독재에 대한 옹호 발언 등으로 많은 반발을 야기한 바 있음. 또한 코로나19를 가벼운 독감이라고 표현하고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을 권고하는 등 코로나19에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였음.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격리 완화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에 반대한 초대 보건부 장관 루이스 엔히키 만데타, 후임 장관 네우손 타이시와 갈등을 빚어 4월과 5월 잇따른 보건장관 사임으로 보건 공백 사태를 초래하였음.
- 여기에 보우소나루 대통령 아들의 가짜 뉴스 유포 혐의가 제기되고, 라바자투를 이끌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세르지우 모루 법무장관이 사임하자, 여론이 더욱 악화되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음. 이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방역 권고를 무시한 채 지지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반정부 시위에 맞서 친정부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하여 6월 초 양측 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하였음.
-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친시장 개혁 정책으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처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사회분열이 점차 심화될 우려가 있음.

국제관계

5G 사업 추진을 앞두고 미·중 양측의 압박 심화

- 브라질 정부는 2022년 중 5G 사업 구축을 위해 2021년 6월 관련 국제입찰을 계획 중임. 이에 대한 중국 화웨이의 입찰 참여여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음.
- 당초 브라질 정부는 2020년 3월 화웨이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클린 네트워크²⁾' 구상에 포함되어 있어 미국으로부터 화웨이 배제 압력을 받고 있음. 8월 18일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5G 클린 네트워크 보안은 브라질 없이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미국 정부는 브라질이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다른 제조업체들의 장비를 구매하는 브라질 통신업체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음.
- 한편, 중국은 브라질 내 이동통신장비의 35~40%가 화웨이 제품이기 때문에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브라질의 5G 도입이 늦어지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음.
-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며 화웨이 배제 가능성을 검토해왔음. 미국의 정권 교체 후에도 미국의 화웨이 배제 요구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브라질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³⁾과 화웨이 제품이 브라질 이동통신장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브라질 재계가 화웨이의 입찰 참여 허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브라질 정부의 결정이 향후 대미·대중 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임.

파라과이와의 자동차 FTA 타결로 모든 메르코수르 회원국과 협정 체결

- 지난 2월 체결된 브라질-파라과이 간 자동차부문 FTA가 8월 10일 발효되었음. 이에 따라 브라질은 완성차 부문, 파라과이는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됨. 특히 자동차 제조업은 브라질의 주요 산업으로, 이미 2015년 우루과이, 2019년 아르헨티나와 자동차 FTA를 체결한 바 있는 브라질은 이번 파라과이와의 자동차 FTA 체결로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모두와 자동차 FTA를 체결하게 되어 동 분야에서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을 구축한 것으로 보임.
- 브라질은 2019년 파라과이에 4억 1,500만 달러 규모의 완성차를 수출하고 동국으로부터 2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부품을 수입한 바 있음. 완성차 수출액 규모는 2019년 브라질의 대 파라과이 총 수출액의 약 16.7%에 해당하는 금액임.
-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EU-메르코수르 FTA 합의안 수정을 주장함에 따라 촉발되었던 양국 간 갈등 및 메르코수르 와해 위기는 아르헨티나가 메르코수르의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며 봉합되었음. 이후 양국 정상회담 추진 노력이 이어졌고, 12월 1일 화상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양국 대통령이 대면하여 메르코수르 활성화를 논의하는 등 역내 주변국과의 외교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음.

2) 5G 통신망과 모바일 앱, 해저 케이블 등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

3)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브라질의 상품수출액의 28.1%를 차지하였으며, 미국(13.3%), 네덜란드(4.5%), 아르헨티나(4.3%)가 뒤를 이었음.

국제관계

환경파괴 문제를 둘러싼 유럽 국가들과의 갈등

- 2018년 10월 대선 당시부터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환경보호보다 개발을 우선시하여, 최근 브라질 내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파괴 문제가 대외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에 따르면, 올해 판타나우 열대 늪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14,489건(9월 13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 또한 11,088km²로 12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음.
- 이에 유럽 국가들은 브라질 내 환경파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지난해 6월 EU-메르코수르 FTA 체결 당시 EU 회원국들은 브라질에 2030년까지 아마존 열대우림 무단 벌채를 종식할 것을 명시하는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8월에는 아마존기금의 운영을 중단하였음. 또한 최근에는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벨기에 8개국이 브라질산 제품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환경파괴 문제를 자국 기업의 대 브라질 투자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브라질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 아마존기금은 아마존의 복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취지로 2008년 창설되어 노르웨이가 94%,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와 독일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여 운영되었음. 그러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가 지속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아마존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히자, 노르웨이가 신규 기부 계획을 취소하여 2019년 8월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음.
- 한편, 환경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는 태도로 일관하던 브라질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자, 2020년 11월 초 각국 외교관들을 초청하여 아미우톤 모우랑 부통령의 인솔 하에 아마존 열대우림을 직접 방문하였음. 그러나 이에 참여한 유럽 국가들이 브라질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향후에도 환경파괴 문제가 EU-메르코수르 FTA 및 브라질의 대 유럽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OECD 가입 절차는 지연되는 중

- 브라질은 국제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속에 2017년부터 OECD 가입을 추진해 왔으며, 2020년 1월에는 정부 내에 OECD 가입 및 회원국들과의 관계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가입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었음.
- 그러나 브라질 반부패의 상징인 세르지우 모루 전 법무장관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직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하자, OECD 뇌물방지 그룹의 드라고 코스 의장이 브라질의 OECD 가입을 동 사태에 대한 조사 이후로 미룰 것임을 밝힌 바 있음. 또한 미국 대선 결과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향후 양국 간 관계에 따라 미국의 지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OECD 가입 또한 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2020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대 브라질 여신잔액 258.1억 달러(단기 48.8억 달러, 중장기 209.3억 달러) 중 연체액은 3.4억 달러로 1.3%에 불과하며, 전체 외채구조에서 중장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81.1%로 안정적인 구성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브라질은 1961~92년 파리클럽을 통해 체결된 6건의 채무재조정 협약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였고, 1992년 이후로는 추가적인 채무재조정 없어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주요 ECA들은 브라질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인수 가능' 입장

- 2020년 12월 9일 현재 미 수은(US Exim), 영국 UKEF와 독일 HERMES 등 주요 외국 ECA들은 브라질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단기 및 중·장기 모두 '인수 가능'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20.10)	5등급 (2019.10)
Moody's	Ba2 (2020.05)	Ba2 (2018.04)
Fitch	BB- (2020.05)	BB- (2019.11)

현재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은 전년과 동일하나, 하향조정 가능성 상존

- 브라질에 대한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브라질 정부의 친시장 정책과 대규모 내수시장, 다변화된 산업구조 등을 바탕으로 2018년 2월 이후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다만, Fitch는 2020년 5월 재정수지 적자 심화와 외채 부담 증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브라질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공시하였으며, Moody's 역시 10월 브라질의 공적채무 증가 추세에 대해 경고하며 동 수치의 추이에 따라 브라질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음.

- 브라질 경제는 원자재 국제가격 회복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추진 지연과 주요 교역국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2017~19년 1%대의 저성장에 그쳤음.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수출가격 하락으로 총수출이 7% 감소하는 등 -5.8%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하에 축소되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16.8%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액 감소분을 상회하는 수입액 급감으로 인해 GDP 대비 -0.4%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보우소나루 행정부는 복잡한 조세제도 등 '브라질 코스트'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금개혁의 성과가 미약한 가운데 강도 높은 친시장 정책 기조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반발을 야기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지방선거에서의 부진으로 정책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5G 사업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압박, 환경 문제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비판 등의 현안에 직면해 있음.